

전주 슬로어워드 수상자 사례 발표

미구엘 로어스 스페인 폰테베드라시장 '폰테베드라의 차 없는 도시 만들기' 사례 눈길

전 세계에 그림과 비움의 미학인 슬로시티 정책과 슬로운동을 확산시켜 온 '제1회 전주 슬로어워드' 수상자들이 사례 발표를 위해 전주를 찾았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UN이 선정한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도시'인 폰테베드라의 미구엘 로어스 시장과 호주 슬로시티 카툼바 주민협의회 대표이자 생태건축가인 나이젤 벨, 가뭄에 시달리던 도시의 물 절약을 위해 수영장을 금지한 이탈리아 슬로시티 아슬로의 마루오 미글리오니 시장, 그림을 주제로 한 명자를 출판하여 책을 읽는 동안 행복을 느끼게 해준 장석주 시인 등 국내·외 슬로어워드 수상자들이 수상사례 발표를 위해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에 참석했다.

대표적으로, 국외 단체 슬로어워드를 수상한 미구엘 로어스 스페인 폰테베드라시장은 이날 '폰테베드라의 차 없는 도시 만들기'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폰테베드라는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에 위치한 인구 10만 명의 중소 도시로, 로어스 시장은 지난 1999년부터 '걸어서 다니는 차 없는 도시' 운동을 이끌면서 개인 자가용의 과도한 사용으로 불살을 앓았던 도시를 보행자 친국으로 만든 사례를 발표했다. 로어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 외곽에 8만대 무료주차장 설치 △도시 내 주차 공간 용량 13.131대 중 66%인 8,691대를 지하 무료 주차장으로 흡수 △34%인 4,440대를 유료 주차로 유도 등 도심 내 차량 감소를 실현한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회사하고 있다.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도시의 교통체증을 줄이고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자가용의 출입 제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이용하기 △보행자가 주축이 되는 도시 공간 활용 등을 추진, 도심 교통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로어스 시장은 "그 결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 공간이 확보되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며 "거리와 광장 등 공공공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골목상권이 부활하는 등 경제력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슬로어워드 수상발표에는 장석주 시인의 '제 길을 느끼게 걸어갔습니다', 마루오 미글리오니

시장의 '이탈리아 슬로시티 아슬로, 수영장을 금지하다', 나이젤 벨 건축가의 '호주 슬로시티 카툼바의 시민 활동 예술'을 주제로 한 수상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에서는 슬로운동의 창시자인 파울로 사투르니 국제 슬로시티연맹 명예회장(이탈리아)의 특별게스트 스피치를 시작으로, 순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의 기조 연설, 세계슬로운동의 대부로 잘 알려진 칼 오너리(영국)와 다크멘터리 제작자인 플로리안 오피츠(독일)의 발제가 진행됐다. 또, 국제슬로포럼간사인 민홍철 국회의원과 유 페이 차 대만 슬로시티네트워크위원장, 마세

즈 시타렉 폴란드 리즈바르크 시장 등 국내외 슬로시티 전문가들과 국제 슬로시티 시장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세계슬로포럼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 도시철학을 기반으로, 세계 유일의 도심형 슬로시티로서 '슬로시티의 수도'를 꿈꾸는 전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라며 "전 세계 슬로운동가들이 슬로운동의 정의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공유하며,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어 향후 슬로시티 운동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김승수 시장, 전주한지 세계화 타진 나서

유네스코 본부·교황청 등 방문 한지의 복원용지 활용 모색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한지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출장길에 오른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와 바티칸 교황청 등을 방문한다. 김 시장은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주한지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주한지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선, 김 시장은 파리 유네스코 사무국과 한국문화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전주한지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고, 유네스코와 세계기록문화유산 복원사업 등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바티칸 교황청으로 자리를 옮

겨 막대한 바티칸 기록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일에 전주한지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김 시장은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동안은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가 주관하는 '전주시·가나자와시 자매도시 결연 15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다. 앞서, 지난 2012년에는 전주시가 주관한 '국제자매도시 결연 10주년 행사'에 가나자와시 시장단이 공식 방문했다.

김 시장은 이외에도 일본 방문일정 중 테이블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도쿄 최대 그릇 시장인 갓파시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군산 앞바다 김양식장 '황백화' 발생

군산 앞바다 김 양식장에서 김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 군산시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곳 김 양식 어민들은 "수산질병의 일종인 '황백화(일명 노랑대)'가 우려된다"면서 분망(분망)작업(김 양식 망을 분리하는 작업)을 마치고 있다.

황백화 현상은 용존무기질소 부족으로 김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성장이 안 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 양식은 10월께 채묘(採苗)를 시작으로 분망(分網)을 거쳐 11월께부터 물김 채취에 들어가 다음해 4월까지 평균 6~7회를 채취한다.

하지만, 고군산 및 개야도 연안 해역은 김양식체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김 양식 어민들은 피해가 확산을 걱정하고 있다.

육도면의 한 어민은 "이 현상이 발생하면 김이 더는 성장을 못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지난 2011년 육도면 비안도와 무너도 등 고군산군도 김 양식장에서 '황백화'가 발생해 큰 피해로 이어졌던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남철 해양수산과장은 "수일 전부터 고군산도 일대 김 양식장 김양체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해 무너도 8개소, 선유도 3개소의 해수 및 염체를 채취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조류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주말 강풍과 수온이 낮아지면서 점차 회복되는 추세"라면서 "지속적인 어장 예찰 및 모니터링을 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민근 기자

축제 준비 물품 휴친 40대 입건

주방기기 등을 휴친 혐의(절도)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일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45분께 부안군 부안읍 한 길가에서 B(62)씨의 튀김기 등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휴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안지역 한 민물고기양식협회 직원으로 가을을 맞아 지역축제에서 시식행사 등을 갖기 위해 해당 물품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걷고 싶은 도시' 꿈꾸는 전주시와 친구된다

'전주시-폰테베드라시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전주시가 차 없는 도시이자 '보행자 친국'으로 불리는 스페인 폰테베드라시와 국제교류에 나선다.

전주시는 2일 전주시정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미구엘 로어스 스페인 폰테베드라 시장 등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폰테베드라시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폰테베드라시는 오직 걸어서만 다닐 수 있는 '차 없는 도시' 만들기 실험 등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편성으로 UN으로부터 '인류 서식지, 보다 나은 인류 미래도시'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로, 전주시와 관광·문화 등 주요산업분야가 유사하다.

시는 폰테베드라시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자동차를 줄여 매년 등 공해를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한 도로위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걷고 싶은 도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도시는 지난해 김승수 시장이 국제 슬로시티 시장총회 참석차 폰테베드라시를 방문하고, 미구엘 로어스

시장과 함께 도시 곳곳을 둘러보는 것으로 국제교류의 첫 물꼬를 텄다.

이후, 로어스 시장이 제1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의 첫 국제부문 수상자로 결정돼 수상을 위해 전주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국제교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폰테베드라의 차 없는 도시 실험과 경험은 전주시가 꿈꾸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귀한 사례와 모범이 될 것"이라며 "꾸준한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 배우고 나누며 가장 인간적인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푸른청소년센터 공간 리모델링 완료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전주푸른청소년센터가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전주푸른청소년센터(소장 정진혜)는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한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상담실 및 교육실 리모델링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공간문화개선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은 한국여성재단이 비영리성단체와 여성이용·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좁은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푸른청소년센터 상담실과 교육실이 쾌적하게 변화했다.

정진혜 전주푸른청소년센터 소장은 "위기(가출)청소년에게 상담, 심리치료, 교육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며 이는 곧 청소년센터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라며 "위기 여성청소년이 새로워진 상담실 및 교육실에서 편안하고 인격적으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